“흔한 법정물 NO” 법원 민낯 드러낸다

SBS 새 수목극 ‘이판사판’ 내일 첫 방
판사들의 치열한 삶·애환·욕망 그려내
박은빈·연우진·김해숙·이덕화 등 출연

“지금까지 법정 드라마는 있었지만, 법원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엄숙주의에 가려진 법원의 민낯을 샅샅이 드러냄과 동시에 판사들의 치열한 삶, 갈등과 애환, 욕망과 좌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제작진의 일성이 거창하다. 판검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수도 없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판사를 정면에 내세운 드라마는 없었던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후속으로 SBS TV가 22일 밤 10시 첫선을 보이는 수목극 ‘이판사판’은 중의적 제목이다. ‘막다른 궁지’를 뜻하는 말이자, 이씨 성을 가진 판사와 사씨 성을 가진 판사를 뜻하기도 한다.

제작진은 20일 “주인공의 직업이 판검사, 변호사인 드라마는 많았지만, 법원을 주 무대로 판사들과 직원들의 삶을 리얼하게 파헤친 이야기는 없었다”며 주요인물들이 판사로 채워진 드라마를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드라마는 로스쿨도 조명한다.

제작진은 “사법고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로스쿨 시대가 도래했다”며 “우리 드라마는 로스쿨의 괴짜, 아웃사이더들이 ‘오판 (잘못된 판결) 연구회’ 활약을 통해 진정한 법조인으로 거듭나는 성장기”라고 밝혔다.

박은빈이 ‘이판’ 이정주를 연기한다. 가족사가 기구하다. 아버지는 사법고시 실패로 자살했고, 오빠는 미성년자 강간살인죄로 무기수 복역 중이며, 엄마는 골병과 화병으로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정주는 불우한 가족사를 뒤로하고 출세하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판사가 된다. 그런데 막상 법복을 입고나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격 탓에 ‘분노조절 장애 판사’ ‘막가파 판사’로 불리며 법원 내 요주의 인물로 찍혀 버린다.

박은빈은 “이정주는 정의로운 판사보다는 잘 나가는 판사되고 싶었던 인물”이라며 “그러나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정의를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이판사판 뛰어다닌다”고 설명했다.

연우진이 ‘사판’ 사의현을 연기한다. 아버지에 이어 판사의 길을 걷게 된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사다. 이정주와 티격태격하면서도 이정주가 위기(날치기, 법정 인질극 등)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면서 미묘한 관계를 맺어간다.

연우진은 “판사들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면밀하게 엿보는 드라마의 결이 좋았다”며 “일반적인 기승전결 접근과는 달라서 매력이 있었고, 로맨틱코미디의 색깔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욕심이 났다”고 말했다.

상반기 SBS ‘수상한 파트너’에서 연쇄살인범을 연기한 동하가 이번에는 검사로 변신한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미친개’로 통하는 강력부 검사 도한준 역이다.

그룹 베스티의 해령이 재벌 3세이자 로스쿨 학생 진세라를 맡았다. 과외 교사였던 사의현을 열렬히 짝사랑한다.

이들 주연 4인방보다 중견 연기자들이 더 ‘짱짱’하다. 김해숙, 이덕화, 최정우, 김희정, 이문식, 우현, 배해선 등이 판사 혹은 판사의 가족을 맡아 극을 풍성하게 만든다.

/연합뉴스

“20년전엔 처가살이 했는데 이번엔 사돈집살이 합니다”

TV조선 시트콤 ‘너의 등짝에…’ 박영규

“20년 전 ‘순풍산부인과’에서 처가살이를 했는데, 이제 장인이 될 나이라 ‘사돈집 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냈어요. (웃음)”

다음 달 4일 첫 방송하는 TV조선 일일 시트콤 ‘너의 등짝에 스매싱’에서 녹록지 않은 현실에 부자 사돈 박해미(박해미 분)의 집에 얹혀사는 박영규 역을 맡은 배우 박영규(64)는 20일 서울 중구 TV조선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영규는 이날 김병욱 PD와 재회한 데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늘 김 PD를 그려왔는데 바쁜 일상에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다 지난 6월에 김 PD가 부친상을 당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김 PD가 2014년 시트콤 ‘감자별’ 이후 3년을 쉬고 있었는데, 아버님도 답답하셨던 것 아닐까요? ‘넌 역시 박영규를 만나야 한다’ 하신 거죠. (웃음) 채널도 시간대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열두 척 배로 왜군을 물리쳤듯 우리도 다시 한 번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웃음)”

그는 또 “요새는 공중파든 종합편성채널이든 케이블이든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콘텐츠가 좋으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규는 “‘순풍산부인과’를 마친 후 지금까지도 시트콤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자신이 없어 하지 못 했다”며 “시트콤은 특히 배우가 PD, 작가와 신뢰가 있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병욱 PD가 아니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PD는 최근 아버님을 떠나보냈는데, 저는 과거에 22살짜리 아들을 떠나보낸 적이 있다”며 “이후에 제가 큰 사랑을 받았던 ‘순풍산부인과’에 대한 기억도 많이 떠올랐다”고도 덧붙였다.

박영규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공감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될 것”이라며 “60여 년 인생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녹아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순풍산부인과’ 종영 후 20년이 되도록 자신의 과거 유행어를 많은 사람이 따라 하고 그리워하는 현상에 대해 “당시에는 유행어가 될지 몰랐다”면서도 “결국 콘텐츠의 힘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콘텐츠를 찾아가는 시대니까요. 재밌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그 시절 미달이 아빠를 찾아갈 정도로 사람들은 콘텐츠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걸 채워주는 게 제 역할인 걸 깨달았습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국제상 수상작 시리즈 바다의 제국(재) 55 UHD 한식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15 생생정보 스페셜	0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스페셜 50 건강혁명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25 헬로키즈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10 월요기획 〈미래세대 제언 시민을 키우고 정치를 배운다〉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20 텔레몬스터 25 에어로버 5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한국인의 밥상 50 UHD 한식 (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재)	45 하하랜드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2018 불꽃원정대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숨터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드래곤에그 3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돌아온 복단지(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밥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35 이웃집 찰스 -인도네시아에서 온 수파르틴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마녀의 법정 (재)	3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특별대담 IMF 20년 대한민국 미래를 묻다			
10		00 마녀의 법정	00 20세기 소년소녀	00 사랑의 온도
11	00 KBS 뉴스라인 30 세계건강기행 50 행복한 지도	10 철부지 브로망스-용띠클럽	1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2	20 생활의 발견	35 영화가 좋다(재)	40 강가 : 인도의 영혼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차茶 기행
-2부 윈난, 소수민족과 차〉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장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총각김치와 갓김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3:40 성난 물고기(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종합)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쿵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20:00 극한직업
〈이동식 가게 제작
-포장마차와 푸드트럭 〉
20:50 세계테마기행
〈적도 위에 푸르른, 미크로네시아
2부 환초의 섬〉
21:30 한국기행
〈취해볼까 가을 제주 2부
인연을 만나거든〉
21:50 EBS 다큐프라임
〈천국의 새〉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1일(음 10월 4일 壬子)

子 48년생 폭넓은 시각과 이해심이 길성을 부르리라. 60년생 점차 확대 되어가는 길목으로 향한다. 72년생 지금 펼쳐지고 있는 판세는 임시적인 상황일 뿐이니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84년생 참신한 발상으로 변화를 꾀해 보자. 행운의 숫자 : 50, 29

丑 49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 61년생 한 쪽으로 치우친다면 문제가 되니 다자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73년생 직접적인 것에 집중함이 장래성도 있고 실용적이다. 85년생 이면의 불씨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4, 19

寅 50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 62년생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74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86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일관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1, 48

卯 51년생 면밀하게 보살펴 줘야 위기를 넘기게 된다. 63년생 오늘의 지출은 내일의 자본이 될 것이니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 75년생 종국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하리라. 87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1, 48

辰 52년생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디대로 대함이 나을 것이니라. 64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따르도록 하라. 76년생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형편에서 입장이 곤란해지겠다. 88년생 함께하는 자리에 빠지면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10, 98

巳 53년생 만사 제쳐두고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일에 몰두하자. 65년생 일방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7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실마리를 찾게 된다. 89년생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04

午 42년생 미련을 버려야 한다. 54년생 아차 하는 사이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을 수다. 66년생 기본적인 형식을 중시해야 한다. 78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0년생 예상해 왔던 구도와 동떨어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7, 01

未 43년생 농담이 진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을 아껴라. 55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67년생 도움이 절실하니 몸을 낮추고 구하라. 79년생 공을 들인다면 꼭 이루어진다. 91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09

申 44년생 내리막길이지만 미끄러우니 세심하게 주의하자. 56년생 큰 것은 놓치고 작은 것만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68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80년생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까지 수정하리라. 행운의 숫자 : 25, 57

酉 45년생 소신과 자신감은 좀 더 나은 결과로 이끈다. 57년생 별것 아니니 대범하게 넘겨도 된다. 69년생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흠집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81년생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미리 나아가 맞이하여라. 행운의 숫자 : 05, 47

戌 46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고 대조해 보아야 한다. 58년생 긴요한 볼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70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하자. 82년생 반복적인 확인만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27, 34

亥 47년생 국면의 전환이 효과적이다. 59년생 절차대로만 진행한다면 순조롭다. 71년생 상당 기간 동안 공들여 왔던 것을 수확하는 쾌거가 있으리라. 83년생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41, 4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